

한국의료패널로 본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우울증을 중심으로¹⁾

*Medical Care Expenditures and Utilisations for
Depressed Adults with Chronic Disease*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고령화, 생활습관,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만성질환(Chronic disease)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증가는 국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증가하는 의료비로 의료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 빈곤·자살 등 문제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 추세다. 65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울증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래방문으로 인한 본인부담액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증을 보유한 사람이 우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성질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고령화, 생활습관,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만성질환(chronic disease)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증가는 국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증가하는 의료비로 의료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 빈곤·자살 등 문제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1.3%로

5년 전에 비해 2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인데 그 중심에 노인자살률이 자리잡고 있다. 인구 십만 명당 65세~74세 노인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1명의 4~5배 이상 높다. 75세 이상 자살률은 인구 십만명당 160명이 넘는다²⁾.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노인 우울증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우울증 환자는 2004년 8만9000명에서 2009년 14만8000명

1) 본 원고는 2011년 12월에 발간예정인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I」 내용의 일부임.

2) 통계청 kostat.go.kr, KOSIS

으로 5년 사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 특히 2009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65세 이상 환자 가운데 여성은 10만4000명, 남성은 4만 3000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더 많았다.

노인의 우울증 원인에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질병, 외로움 증가,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 재정적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우울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치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추적관찰이 이뤄져야 한다. 우울증의 재현(recurrence)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를 구별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해야 하고 체계적으로 추적관찰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높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에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지속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울증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의료비에 대한 적정부담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2009년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질환 분포를 살펴보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최소 1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료이용과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우울증 변수를 독립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

회경제적, 인구적인 요소, 만성질환을 통제하고 우울증이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차이 비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 우울증에 대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한국의료패널 데이터에서는 성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20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만성질환 보유 수는 평균 2.3개로, 여성은 평균 2.7개, 남성은 평균 2.3개이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의 연령대별 특성을 보면, 50대에는 68.7%가 최소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에서는 83.7%, 70대 이상에서는 91.3%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패널에서 우울증 상태는 2009년 부가설문지에서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연속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슬펐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예’로 응답한 경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는 10.7%가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30대, 40대에서 약간 감소하다가 50대 10.1%, 60대 12.2% 등으로 50대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11.3